

대림 제3주일(12월 14일)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마태 11,10)



어린 예수와 어린 요한 세례자

무리요는 어린 예수와 요한 세례자만을 친근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요한의 뒤에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는 어린양이 눈에 띈다. 어린양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희생으로 한 몸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러한 상징을 뒷받침하듯 예수님의 발치에는 붉은색 천 위에 사과와 포도가 놓여 있다. 붉은색은 피와 희생의 상징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따라서 붉은색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수난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뿔이 지게 비리보는 요한 세례자는 전통적으로 성화에서 “낙디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기죽 띠를 둘렀다.”(마르 3,4)라는 말씀처럼 님마 같은 짐승의 털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호트러진 머리 모양으로 표현된다. 또한 그의 상징물로는 갈대로 만들어진 십자가나 어린양이 그려진다.

무리요 | 1655-60, 캔버스에 유채, 국립 예르미타시 미술관, 러시아.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93번 “임하소서 임마누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어 진리의 빛을 밝혀주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태 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2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 어, 3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5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6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7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나?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9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10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을 두고 의심을 품어본 적이 있습니까? (마태 11,6 참조)

지난 시간 나의 삶 안에서 주님을 드러내려고 준비하거나 노력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마태 11,10 참조)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대림 제3주일이자 자선주일인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을 언급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가장 큰 인물’(마태 11,11)로서 고백됩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찾아보면, 마르코 복음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헤로데 왕에게도 두려운 존재’(마르 6,20)로서 소개되고, 루카 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출생과 함께 일어난 일을 두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였다’(루카 1,65)고 전하며, 요한 복음은 ‘말씀이자 빛이신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다’(요한 1,6-7)고 고백합니다.

네 복음서가 전하고 있듯이 세례자 요한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는 겸손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주님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 배우처럼, 세례자 요한은 결코 자신이 주연 배우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끔 증언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겸손한 사람으로서 세례자 요한이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드러나야 할 분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우리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생명의 말씀 써보기 [마태 11장 10절]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말씀나누기 이 시간은 원하는 소공동체에서만 진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함께하기

| 진행자 | : 우리 소공동체가 희년을 살아가며 실천할 사항들을 정해 봅시다.

[포용의 희망] 12월 14일, 감옥에 갇힌 이들의 희년 일정에 따라

공동체와 함께

① 우리 교구 교정사목후원회에 대해서 알고, 공동체와 함께 후원하기

천주교 마산교구 교정사목후원회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에 근거하여, 교정 시설 수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신앙 안에서 희망을 찾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희는 수용자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동행하며, 이 복음적 활동을 통해 회원들 역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교회의 선교 사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원회 조직은 마산교구 사회복지국의 지도 아래, 교정사목 전담 사제와 수도자, 그리고 회장단을 중심으로 한 임원 및 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구성원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교도소와 구치소 내 사목 활동을 헌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진주 교도소, 창원교도소뿐만 아니라 통영구치소, 거창구치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정기 미사와 전례 행사가 있습니다. 또한 예비신자 교리, 세례성사, 견진성사를 통해 새로운 신앙인을 양성하고, 레지오 마리아 활동, 성경 퀴즈 대회, 성경 쓰기 등을 통해 기존 신자들의 신앙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용자들과의 일대일 결연 사업(영치금 지원, 서신 교류), 접견, 환우 지원 등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 후원계좌: 하나은행 160-890023-35604 예금주: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 문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 16길27 가톨릭문화원 3층 교정사목위원회 055) 249-7043

내 삶 속에서

① 범죄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들을 위해 묵주기도 5단 바치기

② 범죄자들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일상 중에 화살기도하기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93번 “임하소서 임마누엘”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